

빠르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9월 19일 (토) 제 1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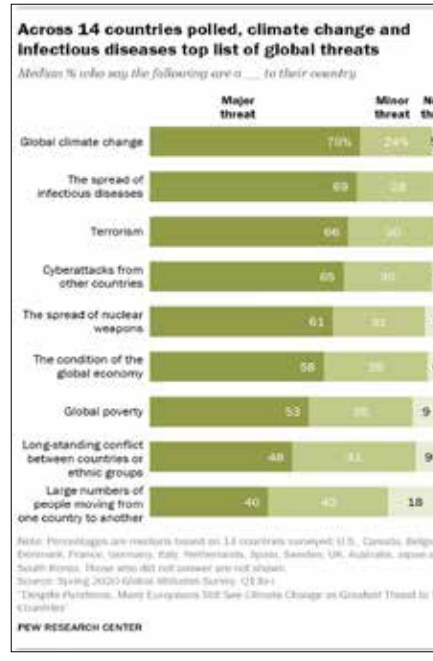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감염병-기후변화-해외사이버공격 지적

퓨리서치센터, 연례 세계 위협요소 국가별 설문조사 보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을, 유럽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덴마크와 호주는 '해외 사이버 공격'을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Despite Pandemic, Many

Europeans Still See Climate Change as Greatest Threat to Their Countries: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top concern in the U.S., UK, Japan and South Korea as global economic concerns grow).



해외 사이버 공격(83%), 글로벌

이에 다수 한국 언론은 '한국인 코로나19 걱정 선진국 중 최고 수준'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대부분은 '감염병은 두렵워하는 것이 옳으며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사회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한 네티즌은 "적당한 긴장과 걱정이 있어야 조심하고 방역수칙도 지키기 조금만 풀어져 봐라 3단계 가도 못잡는다"며 한국이 감염병 확산에 위협을 느끼

불편한 기독교 생명과 변화로 이어진다

TGC, 점점 더 '편안한 기독교' 가 되어가는 8가지 사인 제시

오늘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 쉬운 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란 본래 '불편'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마16:24), 십자가를 지고(눅14:27), 박해를 받고(요15:20; 딤후3:12), 집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며(눅9:58), 가족이라는 우선순위를 저버리고(눅9:59-62; 14:26),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서(마19:21; 눅14:33),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갈2:20)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종교를 찾지 않았다. 나는 와인 한 병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다. 만약 당신을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분명 기독교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중에 '편안한 기독교'를 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독교가 신약성경이 보여주는 날카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기분 좋은 와인 한 병처럼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TGC의 편집장, 브렛 맥크레켄(Brett McCracken)은 편안한 기독교임을 알려주는 8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해준다(8 Signs Your Christianity Is Too Comfortable).

바로 여기에 당신의 기독교가 너무 편안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덟 가지 신호가 있다.

1. 당신이 믿는 기독교와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 관점이 서로 전혀 맞닿을 일으키지 않는다

안하며 선지자적 증인으로서는 기능을 잃어버린 신앙이다.

2. 역설이나 긴장 또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없다

(삼위일체, 성육신,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임재 등) 기독교 신학의 난해한 교리에 대해 고민하거나 씨름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너무 편안한 신앙일지 모른다. 건강하고 불편한 신앙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들쭉

3면: 시론 이동진 목사

4면: 푸른초장 이종태 목사

16면: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황성주 목사, 마이클 조 선교사

미국(78%), 한국(89%), 일본(88%) '감염병 확산' 큰 위협으로 유럽은 '기후변화', 덴마크와 호주는 '해외사이버공격 높아'

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해,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본 역시 88%, 미국과 스페인이 78% 그리고 영국이 74%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유럽 대부분은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보다 기후변화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대부분 '방심은 금물'이라며 두려움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킨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은 감염병 확산(89%) 의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온 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다,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지우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bbooks.org | cjb@1919@g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급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and the *,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Psalm 8:3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9)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5. 미국 청교도 신앙 회복(回復)과 부흥(復興, Revival)

청교도 사상(Puritanism)은 미국 사상의 주류(主流)에서 중요한 위치(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서부의 프론티어(Frontier, 개척)정신,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실용주의)과 더불어 미국의 3대 사상(思想)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교도 사상은 단일(單一) 정신 또는 사상 체계(體系)로서는 가장 오래 유지(維持)되었고, 미국 역사 문화(文化) 형성(形成)에 가장 큰 영향(影響)을 미쳤다.

1) 미국의 뿌리,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Let's return to the Puritan spirit)

1620년 메이플라워(May Flower)호를 타고 온 미국 이민 1세대인 청교도 102명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은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라고 부른다. 이 필그림 파더스가 바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선조(先祖)들이다.

또한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청교도 운동을 주도(主導)한 청교도 지도자들은 경건한 새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시민권(市民權) 부여와 이민(移民)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基督教) 신자에게만 제한(制限)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헌장(憲章)에서 청교도 이주의 목적(目的)을 ‘하나님의 영광(榮光)과 교회의 선(善)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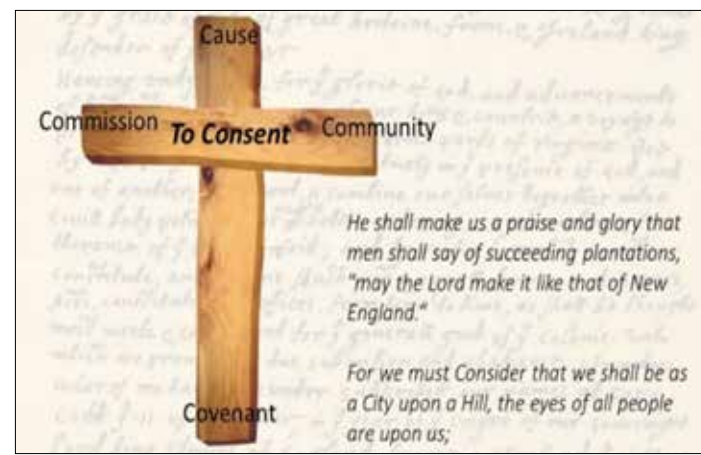
따라서 성도의 자력으로 도덕적 무흠(無欠), 신앙의 고백(告白), 회심 체험(體驗)을 요구하였고, 그들에게 참정권(參政權)을 주어 다스리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共同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기 뉴잉글랜드는 진정한 성경(聖經)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죄가 없는 경건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제임스 2세(James II)는 뉴잉글랜드의 자치(自治) 정부를 부정(否定)하고 신대륙에 대한 지배권(支配權)을 강화하기 위해 총독(總督)을 파송한다.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이 일어나자 보스턴 사람들은 제임스 2세가 파송한 총독 앤드로스(Andros)를 체포하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獨立)을 거론하는 등 혁명적(革命的) 분위기가 고조(高調)되었다. 1691년 인크리스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3)가 매사추세츠에 대한 새로운 면허장(免許狀)을 얻어 귀국(歸國)하였다. 그는 면허의 조건(條件)으로 뉴잉글랜드가 종교적인 관용(寬容)을 허락하고 참정권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擴大)할 것이며 왕이 임명한 총독을 받아들인다는데

동의(同意)하였다. 인크리스의 동의는 뉴잉글랜드를 프랑스나 독일 등의 침략(侵略)으로부터 보호(保護)하기 위한 방편(方便)이었지만 반세기가 넘게 청교도들이 자치적(自治的)으로 운영해오던 정치형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를 허락함으로써 정통적인 신앙에 기초하여 성도들이 다스리는 “언덕 위의 도시”(city on the hill)를 세우겠다는 청교도의 건국(建國)이념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영국정부(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의 개입(介入)으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과 함께 종교적 다원화(多元化) 시대가 열리면서 타 종교인과 이교도(異教徒)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도(熱

度)가 점점 떨어지고 회심(悔心)을 체험한 성도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민 2세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에는 출석하나 형식적(形式的)인 신앙을 지닌 종교적 신자들이 늘어났다. 외식하는 자들이 많아지면서 성경에 기초한 경건한 국가를 세우려는 청교도



도들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1734년과 1735년 사이에 청교도 정신으로 충만했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목사를 중심으로 노스햄튼에서 일어난 제1차 각성운동과 1741년 이후 에드워즈와 영국 성공회 목사 조지 윗필드(George

필그림 파더스 이후 대각성 운동으로 교파초월 신앙 불붙여 독립전쟁 이후 유니테리언교회 되며 미국청교도운동 막 내려

의 꿈(dream)은 식어갔다.

17세기 뉴잉글랜드에 발을 디딘 모든 영국인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었고, 또한 소위 “뉴잉글랜드 방식”(The New England Way)으로 알려진 바의 모든 면들을 반드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뉴잉글랜드에서 1734년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시 대적 종교상황은 아메리카 신정(神政) 정치라 불리던 청교도 제1세대들의 실험은 100년도 채 안되어 완전(?) 종말(終末)을 고하던 때였다. 이렇듯 완전무결한 청교도 정신으로 온전한 신대륙 건설을 강조했던 세계관(世界觀)은 이제 과거(過去)의 일이 되었다. 이민 1세대의 청교도 신앙을 다시 회복하지는 부흥 운동이 18세기 초반 코튼 매더(Cotton Mather) 목사를 비롯한 청교

Whitefield) 그리고 장로교 목사인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 1703-1764)가(家)의 목사들과 연합을 통해 몇 해 동안 계속된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 결실(結實)을 맺었다.

2)대각성 운동의 시발점(始發點) 테오도르 프렐링후이젠(Theodoris Frelinghuysen, 1691-1747)

정준기에 의하면, “이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은 사실 1720년부터였고 그 대각성의 부흥의 불을 지피고 그 불을 지속(持續)시키는데 큰 역할(役割)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네덜란드 출신 테오도르 프렐링후이젠 선교사”로 본다. 조엘 비키(Joel R. Beeke)와 필자 역시 이에 적극 동의 한다.

청교도 제1차 대각성운동의 시발점으로서 그의 역할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役割)과 공헌(貢獻), 특히 “청교도들을 미국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계선교(世界宣教)를 위한 것이다.” 즉, 선교적(宣教的) 목회를 프렐링후이젠은 주장(主張)했다. 그는 윗필드나 에드워즈처럼 성령의 조명(照明)과 내주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네덜란드 개혁파 개신교도들은 뉴저지의 라리탄(Raritan) 강변을 개척하면서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1720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성경 말씀에 충실(忠實)하고 선교 열이 있는 프렐링후이젠 목사를 뉴저지에 네덜란드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프렐링후이젠 목사는 신앙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접(迎接)한 뛰어난 설교가였고, 삶 속에서 경건한 신앙을 실천(實踐)이 있는 자였다. 그는 신학적으로 독일경건주의에도 깊은 조예(造詣)가 있다. 그는 경건주의의 열정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윤리적 생활강령(綱領)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의 깊은 체험(體驗)을 해보지 못한 뉴저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신앙의 회심 경험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조나단 에드워즈의 주장처럼 그리스도를 영적(靈的)으로 만나 보지 못한 자는 집사,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성찬(聖餐)에 참여 할 수 없다는 폭탄 같은 선언(宣言)도 감행했다. 신자(信者)의 생활은 종교적 의무(義務)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을 경배(敬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는 급진적(急進的)으로 부흥을 맞으며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프렐링후이젠의 열매 맺는 목회(牧會)를 본 이웃 교회들은 그를 초빙(招聘)하기 시작했다. 넓은 미국 대륙을 순회(巡迴) 전도자 자격으로 돌면서 그는 신앙 회심(悔心)의 중요성과 신앙의 열매인 경건(敬虔)한 삶을 강조(強調)했다.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프렐링후이젠의 부흥(復興) 사역에 동참(同參)하기 시작했다. 장로교회, 회중 교회,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가 교단(敎團)이나 교파(敎派)를 초월(超越)하여 동역하였다.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을 통한 청교도 대각성 부흥운동은 수십만 명이 회심 체험을 하였고,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의 말처럼 뉴잉글랜드에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가 임한 것 같은 충만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각성 운동이후 신대륙의 화두(話頭)는 독립전쟁(獨立戰爭)에 관한 것이었는데 찰스 조운시(Charles Chauncy)와 조나단 메이휴(Jonatan Mayhew)와 같은 진보주의(Progressivism)자들은 미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독립전쟁에 참여(參與)할 것을 주장한 반면, 1758년 에드워즈가 죽은 뒤 그를 이어 미국 청교도를 이끌어오던 보수주의(保守主義)자들은 소극적(消極的) 입장을 취하였다.

그 결과 독립전쟁 후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진보주의자 편에 가담(加擔)하였고,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는 삼위일체(三位一體) 교리를 부정(否定)하는 유니테리언(Unitarian)교회로 문패(門牌)를 갈아 달면서 미국 청교도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한 청교도 신앙회복 대각성운동 이후 약 280년 동안 미국의 청교도들은 중부지역 복음주의(福音主義) 백인(白人)들을 중심으로 한 바이블 벨트(Bible Belt) 즉, 하나님 절대주권(Absolute sovereignty)의 생활은 종교적 의무(義務)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을 경배(敬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회는 급진적(急進的)으로 부흥을 맞으며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현재,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화로 말미암아 많이 희석(稀釋), 세속화(世俗化) 되었지만 아직도 청교도(淸教徒, Puritans) 정신은 미국(United States) 국민 전체(全體)의 문화와 전통(傳統)으로 표출(表出)되며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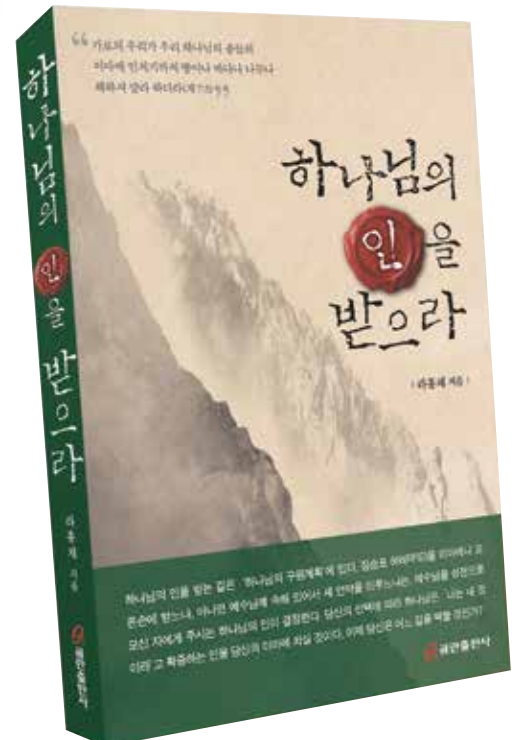
kimjoyh@hot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도의 겸손한 인격(몬1:23-25)찬347장

빌레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는 교회를 성실히 섬기는 겸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는 그런 태도를 강조했습니까? 첫째,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따르며 서로 신뢰할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는 빌레몬의 목회적 신실한 겸손한 마음을 따라 목회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21). 교회는 신실한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울

은 자기가 잠시 머물 방 하나를 부탁했습니다(22). 사도적 목회사역은 지도자의 경건한 성품인 겸손, 성결과 신실함으로 견고하게 됩니다. 사도는 한결같은 움직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랐으며 매번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혼란한 우리시대에 이런 목회사역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화 사도의 축도(몬1:23-25)찬28장

사도의 축도는 3가지 중요한 일들을 포함시킵니다. 첫째, 사도는 감옥에 함께 고난 받는 동료의 문안을 언급합니다(23). 이것은 교회가 이런 헌신자들의 수고로 세워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말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열리가 여기 표현되었습니다. 둘째, 교회에 대한 동역자의 사역을 귀하게 여겼습니다(24). 신실한 일꾼들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확신은 동역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확신이 교회에 충만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에 일어나는 부흥에 교회사역의 초점을 맞췄습니다(25).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때 모든 신령한 복이 위로부터 임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수 예수그리스도의 계시(계1:1)찬241장

오늘부터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시대에 적절한 묵상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그것은 성부로 시작한 것으로 일정한 질서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1). 하나님이 계시자이시고 천사는 계시를 전달하며, 요한은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적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알고 이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계시는 인격적입니다. 계시는 한 인격에서 인격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계시의 수증자인 천사에게 임한 계시는 요한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 그 계시는 반드시 일어난 일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전파로 이 세상이 복음을 중심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줍니다. 특별계시의 사람이 됩니다.

목 복있는 자(계1:2-3)찬235장

복의 원천인 하나님 계시인 성경을 인격 대 인격으로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복됩니다. 첫째, 양심으로 읽는 자가 복됩니다. 여기 읽는 자란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공적 예배에 계시를 낭독하며 설명하고 적용하는 설교자는 계시 때문에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둘째, 듣는 자가 복됩니다. 그 계시를 마음에 잘 받는 자가 복됩니다. 마음에 잘 받아 인내함으

로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모든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키는 자가 복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 곧 계시를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 그 계시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 길을 감시하.

금 요한의 문안(계1:4-5)찬61장

요한이 보낸 문안은 계시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교회가 누릴 복의 열매입니다. 첫째, 그 계시는 교회에게 증거될 것입니다(4). 아시아 일곱 교회만이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심정으로 계시를 받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계시를 양식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계시는 성부의 계시이고 성령의 계시이고 성자의 계시임이 여기 또 나옵니다(4-5). 어제나 오늘이나 장

차 나타나실 성부만이 교회가 가질 은혜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이 복을 적용하시는 분이시고 성자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 복을 친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셋째,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 평강이 임합니다(5). 먼저가 은혜이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바로 이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중심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합시다.

토 구속을 이루신 예수(계1:5-6)찬202장

요한의 계시는 성삼위 중에서도 성자의 구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성자의 구속이 교회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5).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6).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불변하는 언약관계로 사랑과 순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6).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되며 성부의 보좌로 나아가 그를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분명히 이루신 성자의 구속을 즐기며 증거하여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주제로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던 작던 여러 후회가 있을 텐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면 지금은 잘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분명히 잘했을 것입니다. 운동이 그렇고, 다이어트, 공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를 몇 년 후에 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며칠전 같이 거주하는 선교사님들과 2020년은 우리 삶에서 절대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로나로, 그리고 가장 길고 심각했던 장마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려움을 은혜로 잘 이겨냈다고 2020년을 추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어 한마디씩 공부한다면 1년 후 적어도 365개 중 10%만 기억한다 해도 36개의 문장을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이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 삶에서 후회는 거의 없었을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 다시 힘을 내봅시다.

오늘 소개할 앱은 영어공부 앱입니다.

수많은 유료앱을 제치고 유료보다 좋은 무료앱으로 알려진 Cake이라는 앱입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폰은 물론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짧은 동영상 중 중요한 한 문장을 말하게 하는 것인데 반복학습을 통해 익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다보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학습법은 반복입니다. 이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않으면 반복만큼 어떤 것을 잘 배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운동도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골프에서 Short game을 잘 하려면 수많은 반복훈련을 통해 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Muscle memory라고 하는데 어떻게 근육이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뇌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할 만큼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스마트폰을 잘 하려면 배운 부분을 반복을 통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재미가 없으니 남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앱은 아주 좋습니다. Playstore에서는 cake 무료영어학습, Appstore에서는 cake learn English 라고 입력하여 다운 받으십시오. 다운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Logo와 같은지 확인하시어 엉뚱한 앱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십시오. 회원가입이 끝나면 여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고 바로 오늘의 공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간단한 동영상도 나오는데 그 동영상을 눌러 동작시키십시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아래 부분에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들리시는 분은 아래의 문장을 보실 필요가 없으시겠지만(사실 이런 분은 공부 필요 없지만) 아래 문장을 보면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배운 문장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충분히 들으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랫부분의 따라하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문장을 말하면 평가를 해줍니다. A를 받을 때까지 여러 번 이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아랫부분의 리스닝 퀴즈 도전도 한 번 해보시지요? 오늘 배운 문장을 선택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배운 문장은 아니지만 여러 번 들었던 대화문장도 시도해 보십시오. 어렵다고요? 예, 처음 하시는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아생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아마 뭐 이렇게 쉬운 것을 보내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시도해 보고나선 어떠셨나요?

‘아! 이 친구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썼어’ 하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99%는 핑계입니다. 스마트폰도, 영어도, 운동도, 성경읽기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짧지만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은 여러분의 실력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에 물만 부었을 뿐인데 쑥쑥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한끗 차이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말하는 사람과 공부는 오늘부터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부는 오늘, 아니 바로 지금부터!!!

sjyoon7231@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퍼드 애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Ridgewood 809 Broad Ave, Ridgewoo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웃음 상실 시대...다 같이 많이 웃어야 한다!

리더십저널, J. 스투어트 블랙 교수가 전해주는 웃음까지 챙겨주는 리더십 소개

코로나 확산으로 교회의 사역과 구성원 개인의 활동이 모두 위축된 시기, 반복적으로 들리는 전염의 소식과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어려 등은 우리의 마음 역시 위축시키기 쉽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

해 방역지침을 지킨 오프라인 모임이나, 온라인 화상 모임 등을 시도하며 익숙했던 일상의 기쁨을 되새기려 노력하지만 분명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프랑스의 유명 경영대학원 인시아트(INSEAD)의 교수 스투어트 블랙(J. Stewart Black)은 우리 행복의 많은 부분, 나아가 우리의 생산성은 물리적 근접성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대체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거된 물리적 근접성을 통신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보이지 않는 큰 피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웃음"의 상실이다.

세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소그룹의 웃음을 권장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신경 쓰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소그룹 리더가 온라인 소그룹의 웃음 회복을 위해 신경 써야 할 5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무의식적으로 리더를 쳐다본다. 웃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은 리더의 미소다. 목소리 톤 역시 중요하다. 살짝 높은 톤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를 원한다는 신호가 된다.

1. 때론 속도를 늦추라

온라인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소그룹원들의 집중력이 오프라인만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 부

4. 웃는 모범을 보이라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웃음 역



웃음의 유익: 면역향상, 스트레스 해소, 통증감소,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 리더는 소그룹원의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 연결과 재연결에 에너지 쏟아야

한다. 우리가 웃을 때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와 통증을 완화하며, 도파민이 분비돼 학습, 동기부여, 주의력을 향상시킨다. 웃음에는 면역향상, 스트레스 해소, 통증 감소, 동기부여 및 생산성 향상 등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유익이 있다.

담감에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모임을 마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소그룹 리더는 모임의 목적을 재빨리 달성하고 마치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소그룹원들이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재연결 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웃음의 미세한 감싸라도 보인다면, 이를 위해 진행을 잠깐 미루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과 공간을 할애할 줄 알아야 한다.

시 전염된다. 리더가 직접 웃는 것만큼 팀원들을 웃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금세 구별한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5. 리더가 먼저 즐거움을 찾으라

온라인 모임을 하기 전에 소그룹 리더 자신이 먼저 즐거운 상태가 돼야 한다. 즐거운 마음이 잘 들지 않을 때는 단지 몇 초라도 의도적으로 웃고 나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 역시 좋다.

2. 카메라를 켜게 하라

웃음은 청각과 시각을 통해 전달된다. 사람들이 웃음을 더 잘 감지하도록 소용의 채널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라. 모두가 카메라를 켜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더 자주 온라인 모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웃음의 문제는 늘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그룹 리더로서 웃음이 넘치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3. 미소 띤 모습에 약간 높은 톤으로 말하라

사람들은 모임 중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을지 파악하고자 할 때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웃음을 잃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 때문에 웃지 못하는 것 외에도 사회활동이 억제돼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이유 없이 따라 웃는 웃음"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만나 교제할 때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웃음의 감소"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적인 모임을 진행하다보면 소그룹의 리더는 진행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웃음의 중요성은 뒷전이 되기 쉽다. 그렇기에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원들이 많이 웃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웃음"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리더가 게그맨 행

원로칼럼

비대면 예배?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내가 처음 스위스를 가본 것은 1972년이었다. 마침 주일이 되어 취리히(Zurich)에 '물교회' 즉 쾰빙글리(Zwingli)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교회를 '물교회'라고 한 것은 교회의 기둥 절반이 취리히 호숫가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날따라 성찬식이 있어서 나는 스위스 개혁교회의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다.

쾰빙글리는 칼빈(J. Calvin)과 더불어 스위스가 낳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다. 나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감사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4년 후에 마침 형 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세계 칼빈학회 참석차 취리히에 머물면서,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 문이 열리지 않고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교회당 문을 두드리니 관리인이 때문에 달린 조그마한 창을 통해서 말하기를 "이 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웃교회와 합해 버리고 이 교회는 없어지고 지금 박물관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어찌하여 종교개혁의 본산지, 그것도 쾰빙글리가 목회하던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이 되었다니...하면서 울분이 쳐 올랐다.

그래도 나는 주일이므로 교회 마당 의자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렸다. 찬송 몇 장을 부르고 오래 동안 기도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말하자면 내에게는 일인 예배였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서구 교회의 문 닫은 교회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 나의 쓸쓸한 경험이 오래 오래 가슴에 남는다.

"뭘! 비대면 예배라고?" 비대면 예배란 없다. 그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만남(Ontmoeting met God en Zijn Volk)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 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을 아뢰고, 주의 종의 복음적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소명(召命, Calling)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는 것이다.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으면 이미 교회는 죽은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Institute, IV, X.VII, 44 p.14)에는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없이는 열릴 수 없다"고 했다. 여기서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집단예배(Corporate Worship) 즉, 공동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해보자. 첫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더불어(With God)의 예배여야 한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예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응답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둘째, 개혁과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of God)의 예배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지 않으셨다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셋째, 개혁과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Unto God)이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예배들이 매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나오도록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잘못된 예배인 것이다. 예배의 목적이 자신의 위안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화려한 쇼나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청중을 울고, 웃기는 일에 만족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정부에서는 아예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하라!'는 행정명령을 강행하고 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지금 정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성장을 최고의 목적으로 세운 나머지, 이른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곧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처음부터 예배가 아니었고, 그냥 예배장면을 눈으로 보는 것이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온전한 헌신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당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고운 새색시처럼 순종만 하고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의 말씀을 오해했는지, '불법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나은 것인지!' 지금 한국교회는 스스로 합정에 빠진 꼴이 되었다. 그렇게도 말 잘하는 목사들이 어찌서 꼴 먹은 병어리가 되었는가? 신학을 잘못 배웠거나 양심불량이 아닐까?

나는 자꾸 35년 전에 종교개혁자 쾰빙글리가 섬기던 교회가 문을 닫아서, 혼자 교회 앞 마당에서 예배드린 생각이 자꾸 난다.

skc0727@yahoo.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첫날 저녁강사인 황성주 목사는 이번 집회와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예배 변화에 주목”해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전통만 부여잡고 있다는 모든 것 잃을 수도 얘기다. 특히 ‘의식예배’에서 ‘삶의 예배’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모임들을 소그룹 공동체로 대체하며 성도 각자 ‘만인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짐이다. 또한 디지털·스마트 사역으로의 전환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한다.

황 목사는 “코로나19를 통해 창조적 사역과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가 파상적으로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중국과 이란, 유럽 전역, 미국, 그리고 중동과 인도권, 중남미를 흔들고 있다.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신속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나라 완성의 기회다.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감사하자”고 전했다.

의사로, 교수로, 경영자로, 저술가로, 사진작가로, 목회자로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인 삶을 꽃피우고 있는 황성주 박사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멀티 플레이어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수료해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독일 프라운호퍼 암 전문 병원에서 통합의학과 전진치료의학을 공부했다. 독일에서 시행되던 자연면역요법인 미슬도요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지난 22년 동안 현대의학과 면역요법의 감정을 결합한 통합면역치료의학을 분야를 개척하여 수만 명의 암환자에게 통합의학적 치료를 시행했다.

요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한편 면역력 증강과 체력 증진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황 목사는 현재는 △KWMA(한국세계선교회) 이사장 △사랑의병원 병원장 △카이로 통합의학연구소 센터 원장 △대한암협회 이사도 활동 중이다. 또한 △국제사랑의봉사단 설립자이자 국제대표이며 △꿈의학교 이사장 △꿈이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2020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9월 18-20일 프라미스교회

코로나팬데믹 속에서도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20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9월 18일부터 사흘간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개최된다. 뉴욕교협의 최대 연례행사로 매년 6월말-7월 중순 사이에 열렸던 할렐루야대회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속돼왔다.

교협회장 양민석 목사는 “금번 대회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된다”며 “모두 협조를 잘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집회가 치러진다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뉴욕교계에는 치유와 예배의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열려갈 줄 믿는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모두 함께 연합해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원한다”며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를 외쳤다.

또 15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열린 마이클 조 선교사 기자회견에서 양민석 회장은 “대회에서는 교계가 어떻게 1세와 2세를 연결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디테일한 실천부분은 21일(월), IM선교회 사역 소개를 통해 나눌 것”이라며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도움이 된다면 서로 연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주일 후인 25일(금)과 26일(토) 오후 7시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서 열리는 청소년대회는 Patrick Chi(Arumdaun Church)와 Jehoshua Kim(Pursuit NYC)을 강사로 한다.

대회를 준비하는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이번 집회는 이 세대가 경험하는 교회와 세상의 문화적 거리와 세상으로부터의 압력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도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마이클조선교사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강사 황성주 목사

-9월 18일(금) 저녁집회, 19일(토) 오전 목회세미나 인도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면역카테일 암 치료법”, “황성주 박사의 생식과 건강”,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 “사랑의 치유일지”, “황성주 박사의 플러스 건강학”, “디지털 시편 23편” 등이 있다.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

-9월 19일(토) 저녁집회, 20일(주일) 저녁집회 인도

둘째 날인 19일(토) 저녁과 20일(주일) 저녁집회 강사로 선 마이클 조 선교사는 이번 집회에서 첫날은 간증 위주로 가고, 둘째 날은 “코로나 성도”라는 주제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나눈다. 조 선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면은 강력한 예배, 비대면은 교육 강화

를 통해 이전보다 더 좋은 나은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도 산골마을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수회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던 조 선교사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군대복무 중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

와 부모들에게 자신의 굴곡진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간증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클 조 선교사가 대표로 있는 IM선교회(International English Mission)는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엔 포커스를 맞추고 복음을 영어로 전하는 선교단체로, 현재 해외 각지에 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을 복음의 정신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LA지역에 미국지부를 설립했다.

미국 지부는 미국의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전인격, 전인생, 전 방향의 캠프 사역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예수복제소(복음, 제사, 소명) 캠프, 미다살(미국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영성캠프 등 이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세대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M한국본회는 캠프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혹은 유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라난 뿌리가 왜 중요한지 국가관을 통해 알아가며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가치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IM선교회 산하 IEM국제학교는 ‘선교사’양성이라는 IM선교회의 사명 아래 다음세대의 중심에 있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정하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신앙의 영역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고히 하며 생활의 영역에서 공동체성을 고양하고 학습에 영역에서 이타성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여 선교완

“코로나19 이후 예배 변화에 주목” 하는 메시지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치유 캠프, 전인 치유 학교, 암 오픈 클리닉을 개설했고, 국제 암 면역 세미나를 주도했다. 특히 암환자 치료식으로 개발한 ‘황성주생식’은 지난 10년 동안 주

있는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미남침례교단 소속으로 주요 저서로는 “꿈의 씨앗을 심어라”, “황성주의 건강하게 사는

방법”, “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면역카테일 암 치료법”, “황성주 박사의 생식과 건강”,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 “사랑의 치유일지”, “황성주 박사의 플러스 건강학”, “디지털 시편 23편” 등이 있다.

첫날은 간증 위주로, 둘째 날은 “코로나 성도” 주제로

는 주제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앞으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나눈다. 조 선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은 대면과 비대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면은 강력한 예배, 비대면은 교육 강화

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번의 성공과 좌절을 거듭하며 현재의 IM선교회를 통해 차세대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다. 조 선교사는 특히 다음세대

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선교회 외에도 필리핀 ANTS 신학교 학장, IM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성령의 능력 받은 ... (3면에서 계속)

로백은 1984년부터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ecumenical dialogues)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성령 능력 받은 크리스천”이라는 용어가 일부 신자들에게 그

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지만, 필요 없는 벽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동안 ‘리뉴얼리스트(renewalis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존슨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용어가 신조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보

다 자연스러운 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모든 그룹이 다 공유하는 지점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이라는 말이 부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하지만 유일한 용어도 아니다. ‘성령 능력 받은 기독교 탐구’

라는 제목의 새로운 연구가 9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2050년까지 성령 능력 받은 크리스천의 수가 1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전체 크리스천의 약 3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셋 중 한 명이 성령세례를 받는 그때

도 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논쟁하고 있을 것이다. “항상 논쟁 중인 문제”라고 보스턴대학교의 오순절주의 신학자 니미 와리보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성령의 움직임이다. 미국인들은

사람들에게 서구의 기원을 상기시켜줄 그런 용어를 종종 원한다. 그러나 본질은 지리적 기원이 아니다. 역사도, 교리도, 숫자도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성령이며 그리고 성령은 움직인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EVERYBODY LIES 시스앤앤스 데드워즈, 데스트	침묵 앤드 슈사쿠 홍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	--	----------------------------	----------------------------	--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